

대행 스님

눈을 번연히 뜨고도 쉴 수 있어야 진짜 놓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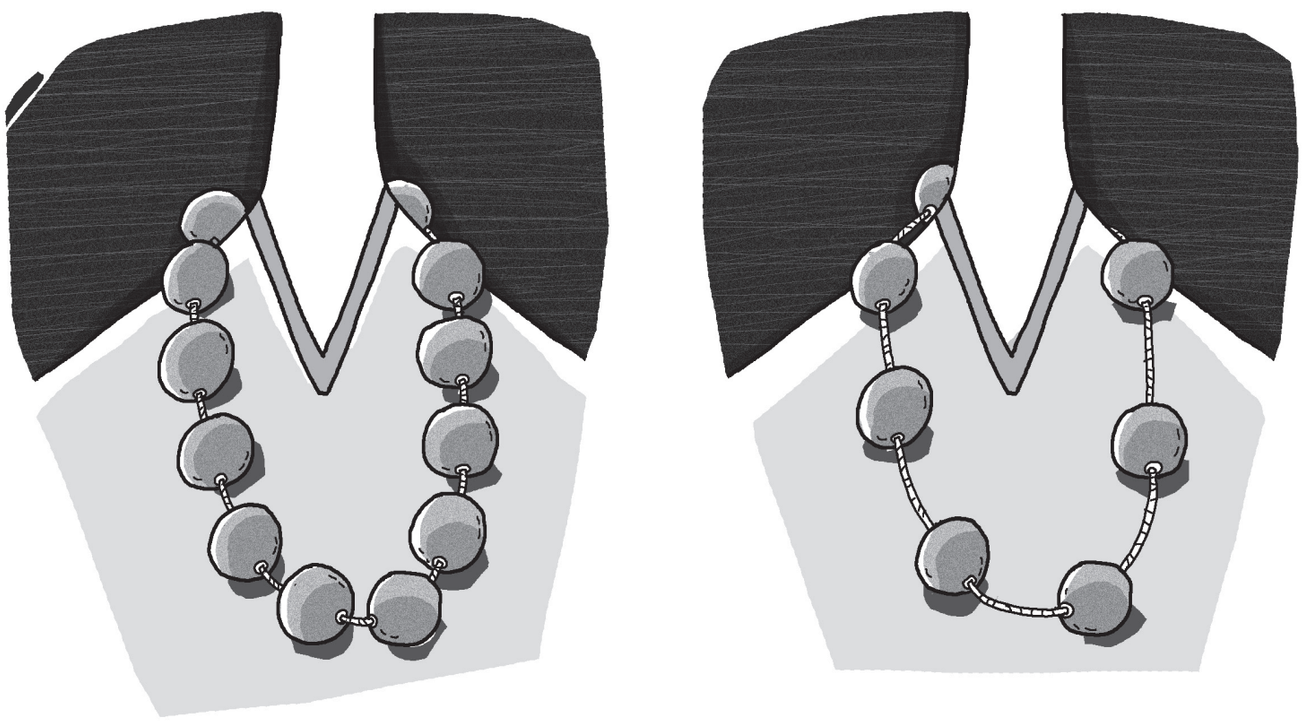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둘이 아닌 도리에 대해서

질문 둘이 아닌 도리에 대해서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어렴풋이 이해는 가지만 확실히 몸과 마음이 각각 있는데 어찌 둘이 아니라 하시는 것인지요.

답변 우리가 항상 몸을 보시면 아신다고 그랬죠. 몸을 보실 때 공체죠. 간단히 말해서 공체로 우리가 살죠. 그런데 딴 사람도 공체란 말입니다. 딴 사람도 공체고 나도 공체고 전부 여기 있는 분들 다 공쳅니다. 공체고 공생이고 공심이고 공용을 하시고 사시고 또 공식으로서 우리가 들이고 내고 하는 것도 공식으로서 그냥 들이고 내고 삽니다. 그러니까 "모두 전체가 공해서 둘이 아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이 사시는 것도 역시 그래요. 지수화풍으로 생겨서 사는데 지수화풍이 있어야 또 살죠. 지수화풍을 먹고 살죠. 근데 여러분들이 보는 눈 하나를 본다 하더라도 눈으로 여기저기 보지 한 군데만 보고 사는 분 없죠. 듣는 귀도 그렇고요. 모두가 몸 전체가 다 부딪치는 데로도 그렇고 다 이렇게 잠시 살짝살짝 그냥 넘어가죠. 화해서 넘어간단 말입니다. 이거 보고 이거 보고, 이거 듣고 저거 듣고,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이렇게 화해서 돌아가죠. 그러니깐 함이 없이 산다 이겁니다. 사는 게 없이 산다 이 소립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세상에 나와서 자식이 되기도 하고 부모가 되기도 하는데, 다시 옷을 벗고 돌아서 탄생을 하니까 다른 부모한테 태어났어요, 인연에 따라서. 그러니까 다른 부모의 자식이 되더란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짐승의 모습을 가지고서 짐승의 자식이 되고, 짐승의 부모가 되어서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돌고 돌다 보니까 내 자식 아닌 게 하나도 없고, 내 부모 아닌 게 하나도 없고, 내 형제 아닌 게 하나도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묘지에 가 보니까 남녀노소도 없이 그대로 늙었더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염주알을 꿴 줄과 염주알이 둘이 아니요, 뿌리와 싹이 둘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뿌리의 세계를 알아야 뿌리의 세계에서 현실의 세계로 나오면서 자꾸 화해서 모습이 바뀌는 거, 인연에 따라서 나오는 거를 50%만 아는 게 아니라 100% 돌아가면서 알아야 '아, 모두가 둘이 아니로구나!' 하고 진실하게 알지, 직접적인 행을 실천해 보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먹어 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둘이 아닌 줄 알겠습니까?

죽었다 깨어나고 깨어났다가 죽는 도리를 확실히 알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 공부를 하고 가는 건데. 그렇게 한다면 그 도리를 알게 됩니다. 과거에 살던 나와 현실에 살고 있는 내가 둘이 아니게 상봉을 해야 비로소 진짜로 공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알게 되는 겁니다. 스스로 알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너 나가 없이, 네 부모 내 부모 아님이 없이 자비를 베풀 수가 있고 마음을 낼 수가 있지, 어떻게 알지도 못하는데 너 나가 없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모습만 둘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마음도 둘이 아니다, 영혼이 둘이 아니다 이겁니다. 영혼이 둘이 아니라면 진짜로 자비를 베풀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모습은 따로따로 있을지언정 한 줄에 꿰어져 있는 겁니다. 염주알은 따로따로 있으나 한 줄에 꿰여 있으니까 너 나가 둘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된다는 말입니다.

무조건 놓아야 하는지…

질문 공부를 하다 망상이 날 때 그냥 무조건 놔야 하는 것인지 의정을 갖고 몰아가야 되는 것인지 혼동이 옵니다.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답변 일체를 놓는 거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이 지금 걸어오셨지만 뒤 발자취를 남기지 않고, 짊어지지 않고 오셨습니다. 고정됨이 없이 그냥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본래는 그냥 놓고 가는 거죠. 놓고 간다는 말 자체도 할 게 없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만날 마음으로 끼어 잡고, 착을 두고, 욕심을 두고, 집착을 하고 모두 이렇게 하니까 그걸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되풀이해서 말씀해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망상도 망상이 아니라 그대로 자생을 길러 내는 원소 자체의 과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망상이라고 할 게 없다 이런 거죠. 그 생각 생각이 나지 않는다면 목석이지 그게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망상이다 하는 관념 그것을 떠나야 되겠습니다.

그럼으로써 '놓는다' 하는 것은 '이게 뭣고' 하기 이전에 직접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한 일은 내가 해결할 수 있다'라는 얘깁니다. 과거로부터 이끌어온 주인이 모든 것을, 몸을 시자로 끌고 다니면서 아프게 됐으면 제 시자를 제가 낫게 할 수 있고 또 이끌어 갈 수 있고 화목하게 할 수 있고, 모든 일체 만법을 다 그놈이 하는 일이니 그놈 탓으로 돌려야 하고, 그놈이 모든 길을 인도한다는 걸 믿고 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눈을 번연히 뜨고도 쉬는 그런 자체가 돼야 그것이 진짜 놓는 것입니다. 우리가 '놓는다' 그러니까 "다 놓고 어떻게 삽니까?"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냥 그대로 하는 것이 놓는 겁니다.

내면에 그대로 들이고 내는 거, 이거 보십시오. 그거를 모르시겠걸랑 들이는 숨, 숨 쉬는 것 있죠? 들이는 숨 자체가 없다면 죽고, 내쉬는 숨 자체가 없다면 죽습니다. 그러면 들이고 내는 숨 쉬는 것은 어떤 놈이 쉬고 있습니까? 그와 같이 생활도 일체 만법을 들이고 내는 데에 여러분이 계시니까 들이고 내죠? 여러분이 계시지 않다면 들이고 낼 것조차도 없죠.

그리고 여직껏 수억겁 광년으로부터 끌고 온, 진화되어서 끌고 온 장본인, 지금까지도 끌고 가는 이런 장본인 주인이 아니라면 간파를 못 하니까요. 그 주인이 있다는 것을 증명도 못 하니깐요. 그거는 사람의 마음으로써 다스려서 놓는 데 아주 간파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야만이 의단도 대의단이 나오지 의단을 일부러 지어서 의단을 한다면 그거는 빈 맷돌 돌리는 거와 같다 이 소립니다. 내가 한때 이런 예가 있었죠. '이 길이 대로의 길이 아니니라.' 정말 발도 떼어 놓을 수 없는 그런 산골, 아주 그냥 천야만야한 데를 그게 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생각을 했겠습니까? 마음은 체가 없어서 지구 바깥에도 나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의 도리를 배우는

☞ 20면으로 계속



삶의 고해(苦海)를 건너가는 지혜의 가르침

세상 모든 생명들에게
바치는 대행스님의
생활속 불법이야기

삶은 苦고가 아니다(개정판)

"살아있는 탑에는
개개인의 살림살이와
보이지 않는 곳의 마음이
같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탑은, 거꾸로 세워놓아도 바로 세워놓아도
모로 세워놓아도 뒤집어서 세워놓아도
세상을 모두 하나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2009년 4월 9일, 책 표지에 탑을 형상화하여 넣으라시며
탑의 의미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행 스님의 법문입니다.

대행스님 법어집 '삶은 苦가 아니다' 오디오북 출시

대행스님의 법어집인 '삶은 고가 아니다'를 오디오북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전문 성우의 목소리가 아니라 대행스님의 가르침을 따라 마음공부 하는
이들이 수개월간의 정성과 노력을 담아 완성한 이 오디오북을 통해
불교를 더욱 편안한 마음으로 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오디오북 소개 |

제1장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
• 내가 누구인지 모른대서야 00:03:13
• 누구나 부처 될 자격이 있으니 00:33:47
• 통하는 길은 오직 마음뿐 00:51:17
• 마음의 안테나를 세워라 1:26:20
제2장 누구에게나 똑같이 부여된 능력
• 생명의 에너지와 주인공 01:37:30
• 자신의 뿌리를 굳게 믿고 01:54:07
제3장 다 놓고 얻는 도리
• 놓고 가는 생활선 02:11:58
• 고정관념부터 깨라 03:03:44
• 삶은 고가 아니다 03:36:59
제4장 서로 돕고 사는 세계
• 공생 공용의 이치 04:23:15
• 생활 속의 마음 도리 05:00:41
제5장 가르침의 바른 이해
• 마음 밖에는 부처가 없다 05:43:54
• 불법의 바른 이해 06:05:10
• 실참 수행 06:49:56
제6장 고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으니
• 고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으니 07:23:00

정가 ~~14,000~~원 → 특판가 12,600원 / 신국판 / 314쪽 (배송비 별도)

『삶은 고苦가 아니다』는 1996년 9월에 처음 발행되어 초판 22쇄라는 기록을 남기고 스테디셀러로 자리매김한 대행스님 법어집 입니다.
2015년의 3판 개정판에 이어 2022년 4월에 개정 제4판을 내놓으며 읽기에 좀 더 편하도록 글자 크기를 키우고 잘못된 부분들을 수정하여 페이지 수를 추가하였습니다.

주문은 마하몰! 02)732-1520 인터넷 주문 : www.mahamall.co.kr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